

사설

‘삶’ 풍요롭게 하는 불교문화

‘문학의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라는 표어를 내걸고 정부가 올해를 ‘문학의 해’로 선포하였다. 특별히 문학의 국가정책적 과제로 내세운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문화예술의 기초인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정보통신, 첨단과학, 영상매체의 발달로 정신문화의 뿌리인 문학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안타까움 때문이기도 하다.

문학이 우리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지혜와 창조를 원천을 제공하는 삶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은 두루 알고 있다. 문학이 문화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건장한 사회가 지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학이 대중적인 기반을 가질 때 국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속에서 문학의 해 조직 위원회가 발표한 사업내용을 보면 너무나 한심하다. 주로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정치적 구호에 충실한 사업과 행사들로 짝 차 있다. 물론 한국문학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이 중요함을 지나쳐 버릴 수는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사업들을 발굴하고, 준비하는 일에 미흡하다는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문학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대중성을 이끌어 내야 하는가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국문학의 중심부에 서 있는 불교문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불교문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1600년이 넘도록 우리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크고 귀중한 문화유산사상을 담은 불교문학을 재조명하고 발전시키는데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

특히 올해를 ‘문학의 해’로 선포한 이상 불교문학에 관한 사업과 행사가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문학의 해’ 조

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불교계와 불교문학의 전문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불교문학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정책적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불교계는 불교문학을 계승·발전시키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불교문학이 무엇이며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속에서 불교문학의 위상을 어떻게 세우야 하는가에 대한 충실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번에 한국불교의 최대종단인 조계종이 ‘불교문학상’을 제정하여 연말에 시상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기대하는 바가 크다.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계기로 불교문학의 발전을 위한 범불교적인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틀의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셋째, 불교문학의 연구에 공동체적 연대가 필요하다. 불교문학의 연구대상인 그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의 기록이 불교문학이라는 인식은 불교계와 문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불교문학은 인류사회의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이미 공인되었다. 독일의 모리스·반타니츠같은 유명한 불교학자는 불교문학이 세계문학이며 그 중심부에 서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훌륭한 불교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기독교문학에 중심을 내주고 주변부로 밀려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문학의 중심 속에 불교문학이 자리잡고 있다는 서구인들의 주장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우리민족의 정신주의를 회복하고 전통적인 우리문화를 세계 방방곡곡에 울바로 알리기 위해서는 불교문학이 가장 강력한 전달수단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종단의 꾸준한 지원을 바란다.

열린 마당

선학원 분쟁

벽암 (조계종 원로)

분종은 있을수 없는 일

선학원 문제는 시비의 대상이 되는것에서 의외하게 생각했다.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하고 논의해온 것으로 있는데 시비 자체가 옳지 않아 간여치 않았었다.

그러나 선학원이 조계종과 분종을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고 이론제는 생방의 상식과 양심으로 풀어야한다.

지흥 (금강정사 주지)

종단과 법인 역할 달라

선학원은 조계종의 명칭을 갖고서 종단에서의 의무 이행에 소홀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종단의 보호이래 자체적으로 종단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조계종과 선학원사이를 오가는 것이다. 이는 선학원뿐 아니라 다른 법인체도 마찬가지다. 종단에서는 이러한 선학원의 분종의지를 우려하고 이를 막기위해 법적장치를 마련하고자 대책위원회 구성한바 있다. 만일 이대로 방치한다면 조계종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코 분종까지는 가지 말아야 하지만 종단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대안은 없을것 같다.

법운 (청용사 주지)

종지봉대 제각각 노력

조계종과 선학원은 조계 종지를 봉대하며 각각의 역할을 해왔다. 행정이 다른뿐이다. 그런데 종단에서는 하나로 뭉치자고 한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있다. 지난해 부터는 종단에서 실시하는 행사교육에 선학원 소속 행자를 제외하더니 금년에는 강원도의 스님들마저 교육에서 제외시키려 한다. 도제양성을 외면하면서까지 요구하는 의도가 남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선학원은 종단에 위법되거나 더욱더 불교를 그릇되게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에서 선학원 관계자를 징계하려고 했다나...

사회도 규모가 커지면 추구하는 이념은 같으면서도 다원화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고 본다. 선학원도 불교계에서의 역할이 있다. 종단관계자들의 넓은 마음을 기대하면서 선학원이 오늘의 조계종을 재건한 정신적 산실임을 재인식해야겠다.

목정배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한국불교 손실 막아야

한국불교에서 조계종과 선학원은 동일뿌리에서 나온 두개의 꽃이다. 각각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왔다. 특히 불교정화와 조계종의 탄생을 선학원이 담당한 역할은 막대하다. 이처럼 서로 다르지 않은 뿌리를 가지고 갈라진다는 것은 한국 불교의 손실이다.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단일 종단이 되어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때에 분종이라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는 단순히 선학원의 분종이 아니라 한국불교의 분열을 뜻한다.

서로가 강자는 자비의 포용력이 필요한 때다.



◇조계종 신하 법인체로 분종위기에 처한 선학원 전경.

선학원은 조계종 재건 산실

한일합방이후 일본 조동종의 침투와 약탈은 사랄령 공포로 한국불교는 최대의 위기를 맞는다. 3.1운동 2년후인 1921년, 당시 김남천 강도봉 송만공 백용성 오성일 김석무스님등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스님들은 신도 시주공과 범어사 포교당을 처분한 대금으로 서울 인곡동에 ‘조선불교선학원본부’를 창건했다. 당시 사찰의 명칭을 ‘寺’나 ‘庵’ 대신 선학원으로 불린것은 사랄령을 시행하는 총독부의 통치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렇듯 오늘의 선학원은 일제의 탄압이 극악했던때 선종을 진

년 3차례에 거쳐 전국수좌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불교의 명맥을 이어왔다.

해방이후 ‘53년 다시 재단법인 선학원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조계종단생,정화불사등 오늘의 한국 불교를 재건하는데 산실이 되었다.

그후 선학원은 조계종이외의 다른 종단 사람도 등록하게 되면서 ‘78년 정관개정을 통해 ‘조계종 승려로서 이사를 구성한다’ ‘선원장(분원장)자격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관개정은 조계종과 선학원 간에 갈등의 씨앗으

1921년 ‘조선불교 선학원 본부’ 창건  
일제시대 한국불교 전통 맥이어  
1953년 ‘재단법인 선학원’ 명의 변경  
78년 이사구성등 정관개정 갈등 불씨

로 지난해 조계종은 법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선학원에 대한 불교조계종 종지 봉대 △임원의 1/3 중앙총회에서 추천 △법인해산후 결성, 범어사 통도사 해인사 지지 사 정해사 망월사등 19개 사찰에 지부를 설치하며 조직을 확대시켰다.

‘26년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선리학원(朝鮮佛敎中央禪理學院)을 설립, ‘34년에 법인 인가서가 발급되었다. 당시 이사장 송만공 부이사장 방한암스님등 당대의 선지식이 선학원을 이끌었다. 선리참구원은 ‘31년 ‘34년 ‘35

로 지난해 조계종은 법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선학원에 대한 불교조계종 종지 봉대 △임원의 1/3 중앙총회에서 추천 △법인해산후 결성, 범어사 통도사 해인사 지지 사 정해사 망월사등 19개 사찰에 지부를 설치하며 조직을 확대시켰다.

‘26년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선리학원(朝鮮佛敎中央禪理學院)을 설립, ‘34년에 법인 인가서가 발급되었다. 당시 이사장 송만공 부이사장 방한암스님등 당대의 선지식이 선학원을 이끌었다. 선리참구원은 ‘31년 ‘34년 ‘35

현대만평



자비심도 한계가...

목어

우리 속담에 ‘떡도 모르고 찹대롱 흔든다’는 말이 있다. 명의(名譽)는 손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인체의 속 소식까지를 감지한다. 실로 신이(神興)롭다고 할 정도다. 이처럼 맥을 잘 짚어만 찹도 제대로 놓을 수 있고, 약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만약 맥을 잘못 짚은 상태에 서 찹을 놓거나 약을 쓰면 치료를 안하느라 못하다.

최근 교육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제2차 교육개혁안은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방

안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전문대학원 신설에 있어 ‘성직자양성전문대학원’ 등장은 아무리 되새겨 보아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불교에서의 성직이란 기독교와 달라 ‘직’이라는 요소보다 자 양성전문대학원 안은 기독교를 의식하고 만들어졌다는 답이 나온다. 그래서인가,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자 각 신문·방송은 ‘성직자대학원’을 ‘신학대학원’으로 보도했다. 또 ‘신학연구 목회주도’를 위한 실용적 분야...히

‘맥’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행적 요소가 강하다. 때문에 ‘성스럽고 거룩한 직무’라는 국 어사전의 우선 해석에 따라 수행을 성직자로 이름해도 불교 성직자는 학교 교육만으로 양성 될 수 없다. 기독교 목회자의 경우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성직 브리어 성서언해’ 등을 내용으로 한 해설기사는 ‘성직자 대학원’ 신설이 어디서 비롯됐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자율적으로 실시해온 신학교육만으로는 성직자를 양성하는데 역부족이라

는... 성직자의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K신문 선교회에서 ‘... 목사 배출 길 트였다’는 기사는 그 답을 더욱 확실케 했다.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 한탄어린 L씨의 말은 불자들이 왜 김대통령 국군교회 예배에 민감했는지, 왜 종교편향근절을 외치는지 대변하고도 남는다.

공직자는 ‘맥’을 잘 짚어야 한다. 다중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을 기대까지 끌어 올리려 했다면 ‘성직자 대학원’ 보다는 ‘종교전문대학원’이 훨씬 더 교육 폭을 넓힐 수 있을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새싹을 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이렇게 배워야 한다

너는 이제 마땅히 이렇게 배워야 한다. 한 순간 장난하고 웃는 동안에도 거짓말을 할 수 없게 하도록 진정으로 거짓말을 할 수 없게 하는가. 이만 같이, 나중이야, 마땅히 이렇게 배워야 한다. (축요경)

협찬 지혜의 등불 봉사선행회 회장 정영자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벽히 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층 높여, 정답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류엔터테인먼트 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기 위한 거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호감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앙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인문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주소 서울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2 20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